

동서발전(주), 우수 품질경영 공인 받아 제30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3개 분임조 대통령상 수상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의 3개 품질분임조가 17일 용평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30회 국가 품질경영대회에서 공기업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국가 품질경영대회에서는 지난 6~7월 개최된 각 지역 품질분임조 경진 대회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전국 176개팀이 열린 경연을 벌였다.

한국동서발전은 3개팀이 출전하여, '발전기 회전자 구조개선으로 진동 불량감소'를 주제로 발표한 일산복합화력의 무결점분임조가 공기업부문 금상을, '취수설비 개선으로 발전출력 안정 및 비용절감'을 주제로 발표한 당진화력의 연합분임조와 '발전기 권선 온도 저하로 고장권선 감소'를 주제로 발표한 울산화력의 워터스 분임조가 각각 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창의성을 발휘하고 품질개선을 적극 추진한 결과"라며, "이러한 우수한 품질경영 능력이 회사의 중기비전인 'ACE 2007'의 성공적인 달성에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중부발전, 2004년 국가경영생산성대상 수상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경영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한국중부발전(주)은 9월 3일 삼성동 코엑스몰 오디토리움홀에서 열린 산업자원부 주최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제28회 국가생산성 혁신대회'에서 미래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영철 사장은 "전사적인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영관리시스템의 혁신, 시스템에 의한 체계적 원가관리, 사업다각화와 연구개발,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실천 등으로 경영효율

과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여 회사의 위상을 높여준 중부가족들에게 이 기쁨을 돌린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국가생산성 대상은 경영생산성 향상 및 혁신활동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포상하며 이러한 우수 사례를 산업계에 확산 보급하고자 제정된 상이다.

중부발전은 '희망과 보람의 세계 일류기업'이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Power Up Cost Down'이라는 경영혁신 구호아래 인간중심경영, 가치창조경영, 변화지향경영이라는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본사와 7개 사업소에 134개의 경영혁신추진반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경영혁신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최고경영자로부터 전 직원에 이르기까지 전사적으로 추진된 경영혁신노력은 중부발전이 2003년도 발전회사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미래성장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 조직을 통폐합시켜 팀제를 본사 및 전 사업장에 도입하여 책임경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설비운영 측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수지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발전원가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연료비용 절감 및 안정적 물량확보를 위하여 연료공급선을 다변화하였으며 설비비용을 제고를 위한 발전설비 정비주기 조정, 열효율 제고를 위한 설비 및 운전방법 개선 등을 추진했다.

또한, 미래 전원확보를 위한 신, 재생 에너지인 100kW급 연료 전지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해외발전사업 진출을 위한 인도네시아 Power사와의 기술협력협약 체결, 축적된 발전운영기술을 활용한 리비아 발전설비 운전기술 교육지원, 소규모 집단에너지 사업인 마이크로가스터빈사업 진출, EPRI 등 국내외 전력기관과의 기술교류와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윤리경영에도 힘써 2003년 전력그룹사 청렴도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지난 7월 창단한 사회봉사단 운영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도 다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노사상생의 문화조성을 위하여 노사협의 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노사 공동으로 노동부 주관 노사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신뢰와 화합의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여 타 발전회사의 노사문화 형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는 국가기간산업의 일익을 담당하는 공익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업이 되는 물론 국내 최우수 발전회사를 넘어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서부발전,

2004년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금상2, 은상2, 동상1 수상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2004년도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가 열렸다. 이번 경진대회는 우리나라 각 기업에서 선발되고 시도별 지역예선을 거쳐 통과한 176개 우수 분임조가 출전하여 자신들의 개선테마 해결 기법과 우수성을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개선사례는 현장, 연구팀, 운영사례, 공기업, 사무서비스, 설비 부문의 6개 부문에서 발표되었으며 서부발전은 연구팀과 공기업 두 부문에서 태안에서 2팀, 평택, 서인천, 청송에서 각 1팀씩 5개 팀이 참가하여 대통령상 금상 2팀, 은상 2팀 및 동상 1팀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대통령상 금상은 태안의 “보일러 연소조건 최적화로 발전원가 절감” 과 평택의 “터빈오일 플러싱 방법 개선으로 계획예방정비 공기단축” 2팀에서 차지했고, 은상은 서인천의 “복합발전설비 최적 제어로 고객만족과 수익 증대” 와 청송의 “댐 차수벽 콘크리트 시공방법 개선으로 공기단축” 이 차지했으며, 동상은 태안의 “미분기 과탄 처리시스템 개선으로 발전원가 절감” 이 차지했다. 이는 한전과 발전회사를 포함하여 공기업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이다.

특히, 연구팀 개선사례 분야는 국내 초일류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전자 등과 경쟁하여 금상과 은상을 거두었기에 서부발전의 품질경영과 개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수원 ‘원전안전운영점검단’ 발족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발전소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활동을 강화키위해 ‘원전안전운영점검단(KOSART)’ 를 발족시킨다.

KOSART(KHNP Safety Review Team)는 원전 노형별(경수로·중수로·표준형), 분야별(운전·정비·방사선안전·기술지원)로 운영경험이 20년 이상인 사외 전문가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한수원은 9일 권오철 발전본부장과 안전기술처 관계자 및 사외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점검단 착수회의를 열고 올해 1차적으로 13일부터 23일까지 고리 1·2호기, 월성 1·2호기, 영광 3·4호기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점검단은 발전소 특성을 고려해 중점 점검항목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나간다.

또 현장의 애로점이나 권고사항을 도출해 경영층에 전달하는 역할도 맡게된다.

점검단 운영은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점검실명제를 통해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수원은 점검단 운영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향상은 물론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오철 본부장은 점검단 착수회의 인사말에서 “원자력 선배들의 그간 노고로 최근 올진 5호기가 성공적으로 상업 운전전에 들어가는 등 원전 운영기술이 지속적으로 발달해왔지만 올해들어 원전 불시정지 건수가 급증해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 이라며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운영점검단이 활발한 활동을 해달라” 고 당부했다.

효성중공업 연구소

오시덕 부장, '2004년 우수자본재 개발 유공자 기업포상' 에서 산업포장 수상

효성중공업 연구소 오시덕 부장은 9월 2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04년 우수자본재 개발 유공자 기업포상' 에서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2004년 우수자본재 개발 유공자 기업포상' 은 자본재 산업 종사자와 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본재의 국산화 추진 및 품질수준 제고를 통한 대외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1986년부터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수여하는 상이다. 오시덕 부장은 개발 유공자 부분에서 '패키지형 압축 천연가스 충전소' 를 개발하여 산업포장을 수상하였다.

오부장은 "전세계적 이슈인 '지구환경보존' 과 '대체 청정에너지 지원'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활동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이며, 이 분야 국내기술수준의 단순 선진화를 뛰어 넘어 세계최고의 제품기술력을 확보할 것" 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남부발전 한마음봉사단, 영등포역 노숙인 자원봉사

한국남부발전(주) 한마음봉사단은 지난 9월 14일, 15일 양일간에 걸쳐 영등포역 인근 노숙자 쉼터에서 이웃사랑 나눔 봉사를 펼쳤다.

'남전한마음봉사단' 은 영등포 인근 노숙인 쉼터와 그들이 생활하는 광야교회를 중심으로 장애인과 노숙인, 무의탁 노인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동안 직원들의 성금으로 모은 '이웃사랑성금' 으로 100만원 상당의 쌀과 라면을 기증하였다.

또한 영등포역 인근의 무의탁 노인이 생활하고 있는 쪽방촌을 방문하여 10여개의 방을 도배하고 주변 청소를 실시하였다.

이번 자원봉사활동은 1일 35명씩 봉사조를 구성하여 오전에는 마을 안길 청소를 하고 점심에는 광야교회 앞의 식당에서 약

500여명의 노숙인, 무의탁 노인에게 점심식사 배식과 설거지를 하고 직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실시된 이번 봉사활동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본사의 많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김상갑사장은 직원들과 함께 점심 식재료를 준비하면서 '봉사활동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의미에서 나아가 본인의 자긍심을 높여 스스로를 돕는 활동' 이라고 강조하고 많은 직원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南電은 지난 7월부터 서울시 강동구 점자도서관에서 시행하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제작을 위한 편찬 사업에도 참여하여 일반도서를 점자화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

두산중, 기업은행과 '네트워크 론' 업무협약 체결

- 협력업체에 저금리 자금지원 통해 경쟁력 동반 제고

두산중공업은 23일 기업은행과 '네트워크 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론(Network Loan)이란 우수협력업체가 두산중공업에 대한 납품실적만으로도 원자재 구매 및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두산중공업과 1년 이상 거래한 협력업체는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심사를 거쳐 1년 거래금액의 6분의 1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의 경쟁력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네트워크 론 제도 시행으로 두산중공업의 1,000여 중소기업이 두산중공업과 동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네트워크 론의 활성화를 위해 다른 대기업과도 협약 체결을 진행중에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이 제도를 통해 현금용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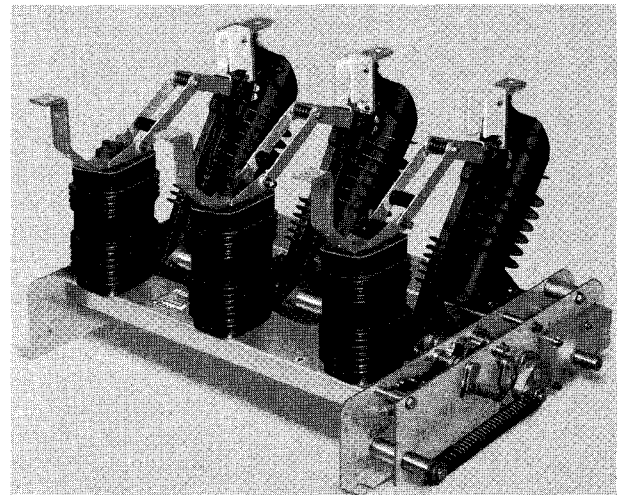
LG산전, 기중절연 고장구간자동개폐기 개발

- 기중부하개폐기 프레임 이용, 신뢰도 높여
- 국내 최초 굴절형 구동 구조 채택
- 사용자의 안전성 고려하여 아크 분출각도 설계

LG산전(www.lgis.co.kr <http://www.lgis.co.kr> 대표 : 金正萬)은 최근 기중절연 고장구간자동개폐기(ASS; Automatic Section Switch)의 개발에 성공하여 다음 달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 신규격 IEC 60265-1을 적용한 630A 기중부하개폐기(LBS; Loda Break Switch) 프레임을 그대로 이용하여 제작함으로써 제품의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

LG산전의 LBS는 출시한지 1년 만에 시장점유율 25%가 넘어서고 있다. 이는 전력기기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LG산전의 LBS가 안전성과 신뢰성 및 사용의 편리성 측면에서 고객으로부터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ASS Controller는 자체 Digital 기술을 접목하여 설계하였으며, 제품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환경시험을 실시하여 무결점 제품을 추구하고 있다.

기중절연 고장구간자동개폐기는 주로 22.9kV-y 계통 1,000kVA 이하 용량의 간이수변전설비 인입개폐기로 사용된다.

LG산전의 ASS는 직선굴절형 구동구조로 차단시 아크의 분출각도가 설치면 대비 50도 이하로 설계되었으며 상간거리를 300mm확보한 것이 특징으로 신뢰성이 높다.